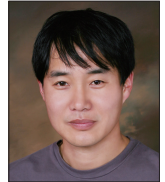


# 하양아, 나도 사랑해!

최종욱

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부  
수의사/동물컬러리스트  
lovenat@hanmail.net



‘하양이’는 우린 동물원의 하양고 큰 유향앵무새이다. 어느 아파트에서 키우던 걸 하도 이웃에 시끄럽다고 하여 동물원에 기증한 것이다. 여기 와서도 처음에 내는 소리라고는 정말 우리가 듣기에도 끔찍한 “까야, 까야자!” 소리라서 그 이웃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았다. 말 못하고 시끄러운 큰 앵무새는 이렇듯 애완조류로서 거의 실격이나 다름없었다. 그러나 여기 동물원에서는 아무리 시끄럽게 한들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다른 동물들 소리에 묻혀 자기 목만 아플 뿐이었다. 그래도 제법 크고 하양고 눈 테도 푸른색인 모양이 제법 근사해서 전시할 가치는 충분이 있었다. 마침 옆의 뉴기니앵무새 ‘초롱이’가 혼자 외로워서 친구도 될 겸해서.

그렇게 ‘하양이는 전혀 사람 말을 따라하지 못하는 천덕꾸러기이다.’는 선입감 속에 조용히 잊혀져갔다. 자기도 아무리 목메어 외쳐봤자 소용없음을 알았는지 많이 조용해졌다.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분밖에 없는 여성 사육사 아주머니께서 급히 전화를 걸어오셨다. 늘 호기심이 많던 나에게 일부러 가르쳐준다고, 하양이가 말을 한다는 것이었다. 정말일까? 너무 궁금해서 한달음에 앵무새 사로 달려갔다. 그러나 하양이는 나를 본 순간 다시 말문을 닫아 버렸다. 아마도 동물원에 몇 번 오신 분들은 상황을 대충 이해할 것이다. 영리한 앵무새에게 낯선 이가 다가가서 대놓고 말 한자리 들어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.

“에이! 아무 말도 안하는데요! 근데 뭐라고 하던가요?” “글쎄 뒤에서 ‘안녕’ 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듣지 못했어.” 그 사건 이후로 하양이에게 회진하면서 꼭 들르는 버릇이 생겼다. 그리고 살짝 말도 걸어 보았다. ‘안녕 혹은 안녕하세요.’ 하고, 그러나 여전히 묵묵부답. 그러던 어느 날 그 날도 아무 기대 없이 되돌아 나오려니 분명 “안녕” 하는 소리가 들렸다. 그 옆의 말 잘하는 초롱이 목소리는 정녕 아니었

다. 어찌면 거의 혀가 좀 짧은 내 목소리와도 닮았다. 뒤돌아서서 천천히 하양이에게로 다가갔더니 하양이도 내 쪽으로 햇대를 타고 꺾충 꺾충 다가와 고개를 연신 까닥이며 “안녕, 안녕”하고 말과 행동이 제대로 된 인사를 해 주었다. ‘아! 드디어 말문이 트였구나! 이 녀석 정말 말을 할 수 있었네!’

그 발로 사육사 아주머니에게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 “하양이가 진짜 말을 하네요.” 하니까 “그걸 이제야 알았어? 저번에 내가 이야기할 때부터 조금씩 말을 해왔는데, 아마 초롱이에게 배웠나봐. 내 말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서 또 늑대소년 처럼 실없는 사람이 될까봐 그 동안 이야기를 안 했지.”

그렇게 서서히 하양이는 “안녕, 안녕하세요.”만큼은 옆의 흥내내기 말 선배인 초롱이보다, 또 평소 과묵한 나보다도 더 능숙하게 말하게 되었다. 동물원에 한두 번 다녀가신 분들은 이 하양이의 인사를 다시 받으려고 찾아오기도 했다. 비록 말은 여러 가지 잘해도 내성적인 초롱이 보단 말이 단순해도 요구하는 대로 곧잘 따라해 주는 하양이가 훨씬 인기가 좋았다.

레퍼토리가 너무 단순한 듯 보여서 하나 더 추가해서, 말만 해도 좋은 기가 통한다는 ‘사랑해요.’란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다. 하루에 꼭 열 번씩은 내 인생 통틀어서도 거의 해 보지 못한 ‘사랑해요, 사랑해요!’ 라는 말을 하양이 앞에서 혼자 수없이 재잘거렸다. 그런데 이 녀석 내가 아무리 사랑해요 외쳐도 계속 안녕하세요라고만 화답했다. 그렇게 지쳐갈 쯤 앵무새장이 한 달 정도 보강공사에 들어가 하양이를 그 동안 보지 못하게 되었고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도 더불어 식어버렸다. 역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이 진리인 모양이었다.

어느 날 공사가 끝났는지 앵무새사의 문이 활짝 열려있어 하양이가 보고 싶어 쑥 들어갔다. 하양이는 오랜만에 왔다고 정말 서운했는지 ‘안녕’이라 말조차 하지 않고 무심하게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. 속으로 ‘미안해.’ 하고 말하고 뒤돌아서서 나오려는데 내 귀에 선명하게 “사랑해! 사랑해!”하는 소리가 두 번 연속 들렸다.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뒤돌아선 그 상태 그대로 내 가슴속에서 무언가 찌릿하고 몽클한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다. ‘이런 게 바로 감동 이라는 놈의 정체인가?’ 착각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양이가 세상 누구보다 더 진지하게 제 마음을 내게 보여준 것 같았다. 아!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정말 좋았다. 나도 하양이에게 천천히 돌아서서 “나도 사랑해!”하고 살포시 말하며 마음으로 꼭 하양이를 깊게 포용해 주었다.🐦

